

공공도서관을 위한 지역 공동보존서고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 Regional Cooperative Preservation Program for Public Libraries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Busan Metro Area -

강 은 영(Eun-Yeong Kang)**

장 덕 현(Durk-Hyun Chang)***

〈목 차〉

- | | |
|------------------------|------------------------|
| I. 서론 | 2. 공동보존서고 운영에 대한 의견 |
| 1. 연구배경과 목적 | III.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방안 |
| 2. 연구내용과 방법 | 1. 자료이관방안 |
| 3. 선행연구 | 2. 공간운영방안 |
| II.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자료보존 현황 | IV. 결론 |
| 1. 보존서고 시설과 수장자료 | |

초 록

최근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도서관자료를 체계적으로 이관받아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역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계획 수립단계에서 첫걸음은 지역 내 단위도서관의 자료보존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사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보존서고 계획과정에 반영하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자료보존현황을 바탕으로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자료보존 현황과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에 대한 사서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2)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방안을 자료이관방안과 공간운영방안 등으로 나누어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키워드: 자료보존, 보존서고, 공동보존서고, 공공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ABSTRACT

Recent efforts to systematically transfer older materials from local library collections to preserve in a cooperative preservation facility, such as regional main library, are being made in each region. The study, in this regard, sheds light the regional preservation program, as it identifies status of preservation in local libraries and analyze the opinions of librarians in order to illustrate the planning process of regional preservation program. Based on the data about preservation status of public library in Busan metro area, the study focused on the strategies to operate a cooperative preservation program for public libraries. Specifically, 1) it investigates the preservation status of public library in Busan area and the librarians' opinion on a cooperative preservation facility in Busan library. 2) It adds a proposal composed with a materials transfer strategy and a space management program.

Keywords: Collection preservation, Repository stock, Collaborative repository, Public libraries, Regional central library

* 이 연구는 부산광역시 위탁연구과제 “부산대표도서관 운영기본계획 수립-운영 및 정보화 계획”(2016)중 ‘공동보존서고 운영 방안 수립’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eykang@silla.ac.kr)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dchang@pusan.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7년 8월 20일 •최초심사: 2017년 8월 29일 •계재확정: 2017년 9월 7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3), 207-232, 2017. [http://dx.doi.org/10.16981/kliss.48.201709.207]

I.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최근 국내 도서관계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을 통해 도서관과 장서확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기 전 2007년 공공도서관 600개관, 1관당 장서수 88,263권이었던 것이, 2015년 978개관, 1관당 장서수 95,949권으로 확대된 것을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 더해 도서관은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용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아날로그 지식과 디지털 지식을 통합하는 공간’, ‘새롭고 다양한 매체를 서비스할 수 있는 설비와 시설을 갖춘 복합공간’ 창출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한된 도서관 공간에서 기존 장서에 더해 매년 입수되는 자료를 수용함과 동시에 쾌적한 이용자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단위도서관 차원에서는 보존서고 확보를 통해 저이용자료 등을 관리하고 나아가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자료는 공동보존서고를 통해 관리하는 단계적인 보존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단위도서관 차원에서 여유있는 공간확보를 통해 보존환경이 구비된 서고를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에 해외에서는 권역별 혹은 관종별로 공동보존서고를 별도로 건립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보존서고를 통한 자료보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해외와 달리 국내의 경우 지역대표도서관이 단위도서관 이관자료 보존역할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독립된 공동보존서고 운영 보다는 대표도서관의 역할 중 하나로 자리잡는 추세이다. 이에 최근 자치단체 별로 진행되고 있는 대표도서관 건립 계획 과정에 공동보존서고 공간을 할애하여 주요 기능으로 포함하는 등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도서관 소장자료를 체계적으로 이관받고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계획수립단계에서의 첫걸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지역 내 단위도서관의 자료보존현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보존서고 계획 과정에 반영하는 일일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1)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자료보존 현황과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에 대한 사서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2) 공동보존서고 운영방안을 자료이관방안과 공간운영방안 2개의 축으로 나누어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

1) 부산대표도서관의 공식명칭은 2016년 7월 ‘부산도서관’으로 확정되었으며, 2014년 9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 운영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상태이다. 2017년 11월 착공하여 2019년 9월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단계에 돌입했는데, 도서관 건립 및 개관을 위해 2018년 본 예산에 300억원(건립비 253억원,

2. 연구내용과 방법

공공도서관 자료보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1) 보존서고의 유형, 규모, 보존환경, 수장서량과 이관현황, 포화정도 등 단위도서관의 보존서고 운영현황과 2)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 시 자료이관계획, 자료이관주기 그리고 이관 자료의 소유권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되었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2016년 현재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수록된 부산지역 공립공공도서관으로 하였으며, 분관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60일간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를 배포한 30개 도서관 중 26개관이 응답하여 87%의 회수율을 보였다. 분석을 위해 모든 항목에 대해 빈도분석과 운영주체/설립년도 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운영주체/설립년도 별 교차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분석대상에 포함하여 기술하였으며, 그 외 항목 간 비교분석이 필요한 경우 내용에 포함하였다. 아울러, 부산시립시민도서관 보존서고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방문조사 대상으로 부산시립시민도서관을 선정한 이유는 1) 부산지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되어 장서량이 가장 많다는 점 2) 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중 서고면적이 가장 넓다는 점 3) 보존서고 수장장서량 뿐 아니라 전체 장서 대비 보존서고 수장장서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 4) 보존서고 수장자료 중 다른 도서관이 보존하지 않는 비도서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이다.

공동보존서고의 운영방안은 관리 측면에 해당하는 자료이관방안과 공간운영방안²⁾ 등 2개의 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자료정리(서지DB구축, 자료의 장비와 배가 등)와 이용자서비스(대출, 복사, 원문, 열람서비스 등)은 제외하였다. 운영방안을 제안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보존서고를 방문 조사하였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보존서고를 사례조사의 대상으로 한 이유는 현재 경기도 교육청 소속 도립도서관 3개관(분관 4개 포함 총 7개관)의 자료를 공동보존하고 있으며, 공동보존 대상 도서관의 범위가 경기도 전 지역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국내에서 지역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을 염두에 두어 신설한 도서관으로는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3. 선행연구

국내의 경우 단위도서관 수장공간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개관준비 47억원)을 우선 확보하고 2019년 개관준비를 위한 예산 92억이 본격 투입될 예정이다(부산시 교육협력담당관실 2017a).

2) 보존서고 운영 과정에서 보존처리업무와 서고환경유지를 위한 시설구비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서고 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관련 시설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였다.

2003년부터이나, 자료의 공동보존이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2006년 이루어진 연구에서 출발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도서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존서고의 물리적·기능적 한계점을 파악한 다음,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보존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대표도서관이 지역별 공동보존관의 기능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강현민 2006). 이후 2007년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지역대표도서관은 법적으로 지역 내 다른 도서관에서 이관받은 자료를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2011년에는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4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해당 도서관들이 지역 내 단위도서관의 자료를 이관받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보존공간의 현황을 근거로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모형을 제안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사례 지역대표도서관들은 대체로 지역 내 단위도서관의 자료이관과 보존업무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고 보존서고 공간도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지연, 김유승 2011). 이어 2013년에는 부산을 대상으로 지역 내 공공도서관의 자료수장 현황 분석을 통해 공간 부족률을 추산하고, 사서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동보존서고에 대한 요구정도를 조사한 연구가 실시되었다(노지현, 조용완, 이제환 2013). 아울러 국내 공공도서관 수장공간 부족률을 추산하여 시도별 공동보존서고 건립순위를 제안하고 공동보존서고가 수행해야 할 주요기능과 바람직한 입지조건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서고 건립 모형을 제안한 연구도 실시되었다(윤희윤 2013). 이어 2015년에는 국내 공립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자료보존 전담부서와 인력현황, 관련 정책의 확보현황, 관련 공간의 확보와 시설 구비 정도, 보존 중인 장서량과 서고 포화현황, 공동보존서고에 대한 요구 등을 조사한 연구가 실시된 바 있다(서혜란, 김선애, 강은영).

이처럼 지역대표도서관 관련 법제가 정비되면서 최근 도서관계는 단위도서관의 공간부족 문제와 자료의 장기적인 보존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역대표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운영을 계획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단위도서관 차원의 자료보존현황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2013년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 이외에는 거의 없다.

Ⅱ.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자료보존현황

1. 보존서고 시설과 수장자료

가. 보존서고의 유형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이 자료보존을 위해 보존서고를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에 응한 26개 도서관 중 21개관(80.8%)이 독립된 보존서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개관 초기에는 보존서고가 없었으나 도서관 운영 중 보존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다른 공간을 개조하여 활용하는 도서관도 있었다.³⁾ 그러나 이 경우 인용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물리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 모두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보존서고 없이 다른 공간의 일부를 서고로 활용하는 도서관도 3개관(11.5%)으로 나타났다. 이들 도서관은 모두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으로 나타났으며, 전술한 3개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공간 활용의 어려움이 많아 서고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표 1> 보존서고 공간현황(빈도(비중, %))

구분	보존서고 있음	다른 공간을 보존공간으로 공동활용	보존서고 없음	합계
전체도서관	21(80.8)	3(11.5)	2(7.7)	26(100.0)
교육청	9(100.0)	0(0.0)	0(0.0)	9(100.0)
자치단체	12(70.6)	3(17.7)	2(11.8)	17(100.0)

나. 보존서고의 규모

보존서고를 독립공간으로 운영하는 21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그 규모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도서관 1개관당 보존서고 평균면적은 229㎡로, 평균 도서관 연면적의 5.9%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운영주체 별로 나누어 보면,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연면적 대비 보존서고 면적의 비중이 6.6%,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의 경우 5.4%로 교육청 소속 도서관 보존서고 면적 비중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 보다 약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면적비중이 가장 낮은 도서관이 0.8%, 가장 높은 도서관은 12.2%로 나타났다. 이를 5% 단위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보존서고의 면적 비중이 연면적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3개관, 5%이상-10%미만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10개관, 5%미만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8개관으로 나타났다. 보존서고 면적 비중이 연면적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상위 도서관 3개관의 포화정도를 살펴본 결과 3개관 중 2개관이 이미 서고가 포화상태로 파악되었으며, 이로써 연면적 대비 보존서고 면적과 서고 포화상태는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 중 2개관의 보존서고 수장장서가 전체 장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이상-40%미만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서고 포화상태는 오히려 서고 수장 장서량의 비중과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표 5>, <표 8> 비교분석).

3) 총 3개관이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모두 자료보존에 적합한 시설과 환경이 구비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도서관의 경우 열람실의 일부를, B도서관의 경우 차고와 식당 등의 일부를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C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내 유희공간을 보존서고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8권 제3호)

〈표 2〉 도서관별 보존서고 면적

교육청 소속 도서관	연면적 (㎡)	보존서고면적 (㎡)	연면적 대비 보존서고비중(%)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	연면적 (㎡)	보존서고면적 (㎡)	연면적 대비 보존서고비중(%)
구덕	1314	138	10.5	금정	8466	540	6.4
구포	7403	88	1.2	기장	2514	22	0.8
명장	1700	139	8.2	남구	5259	154	2.9
사하	1739	58	3.3	다대	3522	206	5.9
서동	1135	120	10.6	동구	2462	300	12.2
시민	12558	1185	9.4	동래읍성	956	33	3.5
연산	1297	94	7.2	북구디지털	2894	72	2.5
중앙	6172	311	5.0	사상	3651	289	7.9
해운대	8555	322	3.8	연제	2016	109	5.4
평균	4,652.6	272.8	6.6	영도	2985	240	8.0
-	-	-	-	정관	7371	161	2.2
-	-	-	-	화명	3182	224	7.0
-	-	-	-	평균	3,773.2	195.8	5.4
-	-	-	-	전체평균	4150	229	5.9

이어 21개 도서관 보존서고의 면적을 50㎡ 단위로 범주화해보았다. 결과, 50㎡이상-100㎡미만 도서관과 100㎡이상-150㎡미만인 도서관이 각 4개관으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넓은 규모에 해당하는 1000㎡이상인 도서관도 1개관 있었으며, 다소 협소한 100㎡ 미만에 해당하는 도서관도 6개관으로 나타났다.

〈표 3〉 보존서고 공간규모(빈도(비중,%))

구분	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350㎡ 미만	500㎡ 이상 -1000㎡ 미만	1000㎡ 이상	합계
응답 도서관	2 (7.7)	4 (15.4)	4 (15.4)	2 (7.7)	3 (11.5)	1 (3.8)	3 (11.5)	1 (3.8)	1 (3.8)	21 (100.0)

「한국도서관기준」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이 연면적의 30% 이상을 보존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대표도서관의 보존서고 공간에 대한 권장기준은 제시되어 있는 반면, 단위도서관의 자료보존 공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다. 다만, 지역대표도서관 보존서고 운영과는 별개로 단위도서관 차원에서도 자료보존을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보존공간과 설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고 면적 100㎡ 미만의 경우, 보존서고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협소하다. 이러한 사실은 100㎡ 미만의 보존서고를 보유한

도서관 6개관 중 4개관이 이미 서고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2개관이 향후 2~3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에서 확인가능하다(<표 3>과 <표 8> 비교분석).

다. 보존서고의 환경

보존서고는 자료의 장기적인 보존과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을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이를 위한 환경구축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자료수장을 위한 서가시설 뿐 아니라 온습도, 조명, 채광, 먼지 및 공해가스, 해충 관리 등을 포함한 환경조절과 자료의 도난, 훼손, 수해나 화재 관리 등을 포함한 재난대책 관련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자료보존을 위한 시설을 서가시설, 환경조절 시설, 재난대비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이 각 항목을 어느 정도 구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독립공간으로 보존서고를 운영하는 도서관과 다른 공간과 공동 활용하는 도서관 포함 24개관 대상).⁴⁾

<표 4> 보존서고 시설현황(빈도(비중, %))

구분	항목	응답도서관	구분	항목	응답도서관		
환경조절	소독처리장비	0(0.0)	재난대비	보안장비	폐쇄회로 감시장치	1(4.2)	
	자외선차단 시설	0(0.0)			이중 잠금장치	5(20.8)	
	보존용 중성 상자	0(0.0)		화재감시체계	화재경보장치	11(45.8)	
	탈산처리장비	0(0.0)			화재진압체계	자동소화시설	8(33.3)
	공기조화설비	제습기		3(12.5)		휴대용소화기	17(70.8)
		항온항습시설		3(12.5)		전력체계	케이블 방화재 사용
		온습도계		4(16.7)	비상작동시설		3(12.5)
일반서가	12(50.0)	피뢰체계	3(12.5)				
서가	밀집서가	전동형서가	0(0.0)				
		수동형서가	13(54.2)				

보존서고는 자료의 이용보다는 보존이 주된 목적이므로 고정식 서가보다는 이동식 서가를 이용하여 자료수장량과 공간활용도를 최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중 보존서고 내 밀집서가 방식의 모빌랙을 구비하고 있는 도서관은 13개 도서관(54.2%)으로 모두 수동형 모빌랙을 갖추고 있었다. 이외 일반서가를 구비한 도서관도 12개관(50.0%)으로 나타났다.

4) 조용완, 노지현(2013)은 보존서고의 환경조건을 기본환경(면적과 수장량, 확장가능성, 건물구조 및 공간배치), 서가설비(서가, 자료배열, 자료수장상자, 자료출납장비), 공조설비(항온항습유지, 온습도 감지 및 경보, 공기청정), 소화설비(화재감시 설비, 화재진압 설비), 보안설비(폐쇄회로 감시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침입탐지 시스템), 기타(비상 보조전력, 서고 내 조명,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등으로 구분하였다. 서혜란, 김선에, 강은영(2015)은 보존서고의 시설을 보존시설(밀집서가, 공기조화설비, 온습도계, 소화설비, 보안장비, 소독처리장비, 자외선차단시설, 보존용 중성관리상자, 탈산처리장비)과 재난시설(화재감시체계, 화재진압체계, 전력체계) 등으로 구분하였다.

환경조절을 위한 시설 부문에서 온습도계를 갖춘 도서관은 4개관(16.7%), 향온향습시설과 제습기를 갖춘 도서관은 각 3개관(12.5%)으로 나타났다. 이중 향온향습시설을 갖춘 3개 도서관은 모두 2010년 이후 개관한 지자체 소속 도서관이며, 모두 수동형 모빌렉을 구비하고 있었다. 최근 자료보존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이 신설도서관 건립 과정과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공간 내 습도조절을 위한 제습기와 향온향습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도서관은 모두 6개관(25.0%)에 불과하며, 그 외 도서관은 온습도의 변화에 따른 자료훼손에 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자료퇴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 해충이나 곤충 등을 차단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시설, 보존용 중성상자, 탈산처리장비, 소독처리장비를 갖춘 도서관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에서 보존서고는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층 자료실에 비해서 온습도 유지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장기적인 자료보존을 위해 온습도 점검과 조절을 위한 별도의 시설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은 자료보존을 위한 기본환경조성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⁵⁾

이러한 기본 환경조성 이외 자료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는 도난과 훼손, 수해나 화재 등에 대한 예방책도 마련해야 한다.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경우, 재난대비 시설 중에서 화재감시체계와 화재진압체계는 다른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도서관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은 도서관이 구비하고 있는 것은 휴대용 소화기(17개관(70.8%))였으며, 화재경보장치도 11개관(45.8%)이 구비하고 있었다. 보존서고는 일반서고에 비해 단위면적당 수장한 자료의 양이 많아 화재 발생 시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진압이 요구된다. 이에 화재감시체계(화재경보장치)와 화재진압체계(휴대용소화기나 자동소화시설)를 모두 갖추어야 하지만, 휴대용 소화기도 갖추지 못한 도서관도 있다는 점에서 보존환경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국내의 경우 단위도서관 보존서고 수장자료 중 저이용자료가 주를 이루지만, 경우에 따라서 귀중서/희귀서를 관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안설비가 구축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보존서고에는 상주인력을 배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입통제장치, 이중잠금장치 그리고 폐쇄회로 감시장치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경우 폐쇄회로 감시장치를 구비한 도서관은 1개관(4.2%), 이중잠금장치를 구비한 도서관은 5개관(20.8%)에 지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5) D도서관의 경우, 관련 시설을 구비하지 않아 서가의 일부에 녹이 슬어 있으며, 곰팡이와 먼지에 책이 오염, 훼손되어 폐기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립시민도서관의 경우, 출판된지 오래된 잡지와 신문을 제분하여 소장하고 있는데, 이들 자료의 경우에는 이미 열화가 진행되어 지면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갈변이 진행되는 등 보존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보존을 위해 구비하고 있는 시설은 제습기, 자동소화기, 휴대용 소화기 등이며, 이동형 서가(모빌렉)이 아닌 일반서가를 이용해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어 제습기로 어느 정도 온습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의 자료보존에는 적합하지 않아 현재 향온향습시설 구비를 계획 중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소장가치가 있는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현실임을 알 수 있었다.

라. 보존서고 장서량과 이관현황

<보존서고 수장 장서량>

2016년 6월 현재 보존서고 운영 도서관 24개관의 전체 장서량 대비 보존서고 수장 장서량을 조사하였다. 23개관이 응답한 결과, 1관당 평균 15.6%의 장서를 보존서고에 수장하고 있었다. 이를 운영주체 별로 나누어본 결과, 교육청 소속 도서관 평균 21.4%,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 평균 14.4%로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보존서고 수장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범주화하여 살펴 본 결과, 15%이상-20%미만에 해당하는 도서관이 7개관(3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이상-10%미만, 10%이상-15%미만, 30%이상-40%미만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각 4개관(17.4%)으로 나타났다. 보존서고 장서수장률이 30%이상-40%미만에 해당하는 4개관 중 3개관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으로 나타나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에 비해 많은 자료가 보존서고에 수장된 사실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들 도서관의 설립년도를 분석해 본 결과, 1901년, 1978년, 1983년, 2006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1901년에 설립된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의 역사에 비례하여 누적된 장서량이 많은 점을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2006년에 설립된 도서관의 경우 누적된 장서량보다는 도서관내 다른 공간의 일부를 할애하여 보존서고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4개관은 모두 이미 보존서고 공간이 포화상태라고 응답하여 보존서고 수장률과 비례함을 알 수 있었다(<표 5>, <표 8> 비교분석). 그 외 보존서고 수장 장서의 비중이 0%라고 응답 2개관은 2015년 개관한 신설도서관으로, 독립된 보존서고는 확보하고 있으나 현재 서고로 이관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보존서고 수장 장서의 비중(빈도(비중,%))

서고수장자료의 비중(%)	0	1이상-5미만	5이상-10미만	10이상-15미만	15이상-20미만	20이상-25미만	25이상-30미만	30이상-40미만	합계
전체 도서관	2(8.7)	2(8.7)	4(17.4)	4(17.4)	7(30.4)	0(0.0)	0(0.0)	4(17.4)	23(100.0)
교육청	0(0.0)	0(0.0)	2(25.0)	0(0.0)	3(37.5)	0(0.0)	0(0.0)	3(37.5)	8(100.0)
자치단체	2(13.3)	2(13.3)	2(13.3)	4(26.6)	4(26.6)	0(0.0)	0(0.0)	1(6.7)	15(100.0)

<보존서고 자료이관현황>

도서관의 보존서고 이관장서량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간(2013-2015) 서고로 이관된 장서량을 조사하였다. 서고이관자료가 전체 장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 3년 평균 1관당 5.8%에 해당하는 장서를 보존서고로 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개관 응답)⁶⁾.

이 결과를 범주화하여 살펴 본 결과, 대다수의 도서관(15개관(83.3%))이 5% 미만의 장서를 보존서고로 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이상-9%미만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한군데도 없었다. 이어 9%이상-10%미만, 10%이상-20%미만의 자료를 서고로 이관한 도서관이 각 1개관이었으며, 응답도서관 평균에 비해 눈에 띄게 많은 장서를 보존서고로 이관하는 도서관도 1개관⁷⁾으로 나타났다.

<표 6> 보존서고 이관 장서의 비중(빈도(비중, %))

서고이관자료의 비중 (%)	1미만	1이상-2미만	2이상-3미만	3이상-4미만	4이상-5미만	5이상-6미만	6이상-7미만	7이상-8미만	8이상-9미만	9이상-10미만	10이상-20미만	40이상	합계
응답도서관	2 (11.1)	3 (16.7)	3 (16.7)	4 (22.2)	3 (16.7)	0 (0.0)	0 (0.0)	0 (0.0)	0 (0.0)	1 (5.6)	1 (5.6)	1 (5.6)	18 (100.0)

보존서고에 도서관 이외 비도서자료를 어느 정도 수장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도서관 중 6개관(23.0%)만이 비도서자료를 보존서고에 수장하고 있어 보존서고 수장자료 중 비도서자료의 비중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6개관이 보존서고에 수장 중인 비도서자료의 유형은 DVD, CD,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제본신문, 잡지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수량은 많지 않았다. 이 중 종이자료로 분류할 수 있는 제본신문과 잡지는 부산시립시민도서관에만 수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산시립시민도서관에서는 디지털화되지 않았거나 부산지역 내 다른 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구간 잡지(제본잡지 1,601책, 비제본잡지 9,393책 등 총 10,994책(63종))와 신문(531책)을 제본하여 수장하고 있다⁸⁾. 담당사서에 따르면 제본잡지는 주로 인문학 분야 연구자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신문은 디지털자료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 등 이용자들의 요구가 빈번하기 때문에 폐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본신문의 일부는 연속간행물실 내 모빌렉에 보관하여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외 비디오테이프 998점과 학습용 카세트테이프 1,686점 등에 더해 지도와 관보도 다량 수장되어 있다. 최근 지도와 관보 등의 자료는 디지털화되어 제공되는 추세이나 부산시립시민도서관에서는 실물자료로서의 가치를 고려하여 폐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산시립시민도서관은 단행본 이외 비디오테이프, 제본신문, (제본)잡지 등 다른 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유형의 비도서자

6) 2013년 4.9%, 2014년 5.85%, 2015년 6.2%로 서고 이관자료의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었다.
 7) 부산시립시민도서관으로 담당사서에 의하면 2013년 43%, 2014년 42%, 2015년 43%로 최근 3년 평균 42.7%의 장서가 보존서고로 이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8) 현재 보존서고에는 미제본잡지와 미제본신문도 다량 수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제본잡지와 제본신문은 등록업무가 실시되어 정확한 수량 파악이 가능하지만, 미제본잡지와 신문은 등록업무가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수량 파악이 힘들다는 점에서 정확한 수장량을 추산하기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료를 다량 수장하고 있으나, 해당자료를 보존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지 않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⁹⁾

장서관리과정에서 이용률이 저조한 자료, 물리적 훼손 정도가 심한 자료, 복본이 과다하게 많은 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서가에서 제거하는 것은 장서의 질을 제고하고 열람공간의 쾌적성과 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아울러 귀중서/희귀서 등 장기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도 별도의 공간에서 보관하거나 매체변환을 통해 원본은 유지하고 대체본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듯 자료로서의 가치가 저하된 자료와 장기적으로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는 그 이유는 상반되지만 보존서고에서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에 보존서고 운영도서관 24개관을 대상으로 보존서고로 자료를 이관하는 실질적인 이유를 조사해보았다.¹⁰⁾ 조사결과, 자료이관의 가장 큰 이유는 자료실 공간부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항목에 비해 2배 이상의 값을 보였다. 이는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존서고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거의 절반 가량에 이르고 있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다음으로 자료의 저조한 이용률과 자료의 파손/훼손이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으며, 복본 과다와 최신성 저하 역시 이유에 포함되었다. 이외 내용의 부적절성과 자료의 장기적 보존가치를 이유로 이관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처럼 단위도서관 보존서고에 수장된 자료 중 귀중서/희귀서가 드물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보존서고로 자료를 이관하는 이유를 운영주체 별로 분석한 결과, 자료실 공간부족이 가장 높은 점은 공통적이었으나 다른 항목 응답순위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경우 공간부족 이외, 복본과다>파손/훼손>최신성저하>저조한 이용률>내용의 부적절성>장기적 보존가치 등의 순으로,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의 경우 저조한 이용률>복본과다>파손/훼손>최신성저하>내용의 부적절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간부족 문제 이외 교육청 소속 도서관

9) 방문조사 결과, 단행본 일부와 비디오테이프는 수장공간과 서가가 부족하여 바닥에 쌓아 두고 있어 서고의 포화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산시립시민도서관은 1998년 고문헌 분야 특성화도서관으로 지정되어 해방 전 일서와 한중일 고서 등 귀중서/희귀서로 분류되는 고문헌자료는 보존서고가 아닌 고문헌실을 활용하여 보존하고 있다. 해당 공간의 경우 향온향습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일부자료의 경우 중성상자에 보관하고 있다. 도서관 자체적으로 탈산장비는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기록원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탈산처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자료의 보존환경은 대체로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료이용공간은 자료보존공간과 분리하여 출입구 쪽으로 할애하여 자료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공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자료이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시민도서관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 해방 전 일서와 한중일 고서 등은 별도의 공간에서 장기적인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존관리가 가능한 자료는 부산도서관으로 이관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조사과정에서 “원형 보존이 요구되는 시민도서관의 문헌자료, 광복전일서는 시민도서관에서 보존해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뒷받침해준다.

10) 보존서고로 자료를 이관하는 이유는 도서관마다 각 항목의 비중이 다를 것이라는 판단으로, 순위별로 해당 사항에만 응답하도록 하여 가중치합계를 계산한 다음 응답도서관 수(교육청 소속 9개관, 자치단체 소속 16개관 총 25개관 응답)만큼 나누었다.

에서는 자료의 복본과다 문제가,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에서는 자료의 저조한 이용률이 서고 이관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었으며,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의 경우 자료의 장기적 보존가치를 서고이관이유로 꼽는 도서관이 없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에는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에 비해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역사가 긴만큼 오래된 자료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7〉 보존서고 자료이관 이유(빈도(비중, %))

구분	공간부족	저조한 이용률	파손/훼손	복본 과다	최신성 저하	내용의 부적절성	장기적 보존가치
전체도서관	118(4.7)	68(2.7)	64(2.6)	49(2.0)	34(1.4)	15(0.6)	13(0.5)
교육청	48(5.3)	11(1.2)	23(2.5)	34(3.8)	16(1.8)	8(0.8)	13(1.4)
자치단체	70(4.4)	53(3.3)	26(1.6)	34(2.1)	18(1.1)	12(0.8)	0(0.0)

마. 보존서고 포화정도

보존서고 운영도서관 24개관의 서고 포화상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했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12개관(50.0%)으로 나타나, 절반 가량의 도서관이 보존서고의 공간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존서고 장서수량이 전체 장서수의 31-40%에 해당하는 4개관 모두 이 범주 안에 포함되었다(〈표 5〉, 〈표 8〉 비교분석). 포화상태에 도달한 12개 도서관의 설립년도를 분석한 결과, 1990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설립된 도서관과 그 이후에 설립된 도서관이 각 6개관으로 나타나 설립년도가 오래된 도서관만 보존서고 공간 부족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어 향후 2-3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이라고 응답한 도서관과 향후 5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이라고 응답한 도서관이 각 4개관(15.4%)으로, 10년 이내로 응답한 도서관은 3개관(12.5%)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10년 이후에도 적정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도서관은 1개관(4.2%)으로 해당 도서관은 2014년에 설립된 신설도서관으로 나타났다.

〈표 8〉 보존서고 포화 상태(빈도(비중, %))

구분	전체 도서관	교육청	자치단체
이미 포화상태	12(50.0)	7(77.8)	5(33.3)
향후 2~3년 이내에 포화상태 도달	4(16.7)	1(11.1)	3(20.0)
향후 5년 이내에 포화상태 도달	4(16.7)	0(0.0)	4(26.7)
향후 10년 이내에 포화상태 도달	3(12.5)	1(11.1)	2(13.3)
향후 10년 이후에도 적정수준 유지 가능	1(4.2)	0(0.0)	1(6.7)
합계	24(100.0)	9(100.0)	15(100.0)

보존서고의 포화상태를 운영주체 별로 분석한 결과, 이미 서고가 포화상태라고 응답한 12개관 중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7개,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이 5개로 나타났다. 교육청 소속 도서관 9개관 중 7개관(77.8%)이,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 15개관 중 5개관(33.3%)이 포화상태라고 응답해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서고포화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후 이어지는 이관희망자료목록 상의 자료 역시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자료가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의 자료에 비해 2배 가량 많다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서고 포화도가 높게 나타난 교육청 소속 도서관 중 부산시립시민도서관의 보존서고는 최대 300,000여책 수장가능한 총 면적 1,185㎡(복층구조)로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중에서는 가장 넓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현재 단행본 300,000여책에 더해 비도서자료인 제본신문/잡지, 비디오테이프(VT) 등이 서고면적의 1/3가량에 해당되는 공간에 보관되어 있어 이미 과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 공동보존서고 운영에 대한 의견

가. 이관계획자료

향후 단위도서관이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하고자 하는 자료유형을 조사하였다. 도서류와 비도서류, 비도서류의 경우에도 유형별로 보존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공간을 구분하고 보존환경을 별도로 조성해야 기대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하고자 하는 자료의 유형에 대해 동일한 온습도를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 ‘단행본, 참고도서, 정기간행물’, ‘흑백 사진필름, MF, CD/DVD’, ‘날장자료, 사진, 스크랩북, 신문, 지도, 포스터’, ‘칼라 사진필름’, ‘미술품, 박물관류’ 등 총 5개의 범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¹¹⁾

〈표 9〉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하고자 하는 자료유형

구분	가중치 합계
단행본, 참고도서, 정기간행물	78
사진필름(흑백), 마이크로필름, 자기매체(CD/DVD)	17
날장자료, 사진, 스크랩북, 신문, 지도, 포스터	10
사진필름(칼라)	-
미술품, 박물관류	-

조사 결과, ‘단행본, 참고도서, 정기간행물’ 등 도서류 등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 단위도서관 보존서고에 수장 중인 자료의 유형이 단행본에 치중되어 있는 현상과

11) 순위별로 3개까지 응답하도록 하여 가중치합계를 계산하였다.

일맥상통한다. 비도서자료의 경우 ‘흑백 사진필름, MF, CD/DVD’ 등과 ‘날장자료, 사진, 스크랩북, 신문, 지도, 포스터’ 등은 이관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칼라필름, 박물류, 미술품 등의 이관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장기적인 차원에서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할 자료의 유형 이외, 개관 시점 단위도서관에서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할 장서량을 유형별로 조사하였다. 2016년 7월을 기준으로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중 22개관의 이관희망자료목록을 수집하여 수량을 정리한 결과, 도서류 121,329책,¹²⁾ 테이프자료 2,684점(카세트테이프 1,686점, 비디오테이프 998점), 잡지(제본/미제본) 10,994책, 제본신문 531책 등으로 추산되었다. 이중 비도서자료는 모두 부산시립시민도서관이 이관하고자 하는 자료였으며, 인용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 내 다른 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단행자료에 대한 이관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시민도서관은 제본신문 및 제본잡지와 더불어 미제본 상태의 신문과 잡지 등을 자료보존과 계승을 위해 이관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코라스(KOLAS) 미등록 상태인 신문과 잡지가 많아서 정확한 수량 파악에는 어려움은 있다. 시민도서관 자료 중 자료의 정보가치는 상실했을지라도 관보나 낱장 지도 등 자료의 변천사 파악이 가능한 박물관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는 이관하고자 한다. 더불어 타 도서관이 소장하지 않는 자연기술과학도서의 구간, 독학자료, 다문화도서, 영어원서 등을 이관할 계획이다. 특히, 과학기술도서의 경우 개정판이 발행된 구간자료로 다른 도서관에서는 폐기처리하여 소장하지 않은 자료 중심이고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비매품도 포함되어 있어 대표도서관 차원에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관희망자료목록 상 자료는 현재 단위도서관 보존서고 수장자료라는 점과 단위도서관의 자료실과 보존서고는 상당부분 포화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회계연도 내에 폐기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관희망자료목록 상 자료 즉, 단위도서관 보존서고 수장자료는 수장공간 포화문제로 부산도서관 개관까지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후 부산도서관 개관 시점에 해당 자료를 안전하게 이관하기 위해서는 임시보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사서들이 제기한 공통적인 의견이었다.¹³⁾ 다음은 자료의 임시보관과 관련하여 설문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이다.¹⁴⁾

- 12) 이를 운영주체별로 나누면, 교육청 산하 도서관 9개관 총 69,529책(관당 7,725책), 자치단체 산하 도서관 13개관 총 51,800책(3,984책)으로 교육청 산하 도서관 이관희망자료가 자치단체 산하 도서관에 비해 2개가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존서고 이관자료에 1종 2책 이관원칙을 적용할 경우, 도서류는 114,592책 가량 이관될 것으로 추산되었다.(1종 1책 79,992책, 1종 2책 26,384책(13,192종), 1종 3책 이상 14,953책(4,108종)으로, 복본이 39책인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다.)
- 13)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경우, 개관 전 임시수장공간(인근 학교)을 마련하여 자료를 보관하다가 학습관 개관과 동시에 자료를 이관하였다. 단위도서관의 공간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일시적으로 유희공간을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 14) 이관예정자료의 임시보관장소 확보 문제는 설문조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2016년 6월 개최된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보존서고 실무자 간담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이관희망목록이 작성된다 하더라도 단위도서관 서고는 이미 포화상태이고 부산도서관 개관까지 2-3년 동안 보관할 곳이 없으므로 자료를 폐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2-3년 동안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역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역할 중 지역 내 귀중본/희귀본의 수집과 체계적인 관리 기능도 중요하지만, 단위도서관의 저이용 자료에 대한 보관 기능 역시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쾌적한 공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과포화상태에 달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소장자료를 부산도서관 개관 전까지 보관하기 위해 임시보관소 마련 논의를 실시하였다. 이후 2017년 2월부터 유휴공간이 있는 초등학교의 교실 일부에 11개 공공도서관의 이관예정자료 131,154책을 보관하고 있으며, 부산도서관 준공 이후 부산시로 최종 이관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해당 기간 중 자료보존의 최적화를 위해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¹⁵⁾

나. 자료이관주기

단위도서관에서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로 자료를 이관할 때, 이관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인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1년'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21개관(80.7%)으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1개관(3.8%)으로 나타났다. 이외 2년 혹은 2-3년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도서관도 3개관으로 나타났다.

〈표 10〉 자료이관주기에 대한 의견(빈도(비중, %))

구분	수시	매월	분기별	6개월	1년	기타	무응답	합계
응답도서관	0(0.0)	0(0.0)	0(0.0)	1(3.8)	21(80.8)	3(11.6)	1(3.8)	26(100.0)

다. 이관자료의 소유권

단위도서관에서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로 자료를 이관할 때, 이관자료의 소유권 처리 방

15) 2016년 10월 부산시는 부산도서관 이관예정도서 임시보관소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임시보관소 마련 관련으로 부산시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11월 임시보관소 마련 결정을 부산시에 통보한 다음, 함께 임시보관소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여 세부계획을 마련하였다. 2016년 7월에 조사된 이관희망자료목록에 근거한 시점에는 교육청 산하 도서관이 9개관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7년 2월 실제 임시보관장으로 자료를 이관한 도서관은 11개관으로 2개관이 추가되었다. 현재 임시보관소에 수장된 자료는 시민도서관 33,256책(비도서자료 18,985점 포함), 중앙도서관 9,748책, 구포도서관 12,000책, 해운대도서관 10,010책, 부전도서관 10,000책, 반송도서관 5,073책, 구덕도서관 30,252책, 서동도서관 6,001책, 사하도서관 5,000책, 연산도서관 4,814책, 명장도서관 5,000책 등이다(부산시 교육협력담당관 2017b). 교육청 소속 도서관을 중심으로 임시보관소를 배정한 이유는,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에 비해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서고포화도가 높은 편이고 이관희망자료도 2배 가까이 많다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으며 더불어 담당 사서들의 요구도 높았기 때문이다.

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15개관(57.7%)이 단위도서관이 부산도서관에 자료와 함께 자료의 소유권도 양도하는 형태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여, 절반 이상의 도서관이 자료의 소유권 이관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단위도서관이 부산도서관에 자료만 이관하고 자료의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는 형태는 5개관(19.2%), 단위도서관이 부산도서관에 자료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보존가치가 높은 일부 자료의 소유권은 단위도서관이 유지하는 형태가 적당하다는 도서관과 단위도서관이 자료의 소유권은 유지하되 보존가치가 높은 일부자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가 적당하다는 도서관이 각 2개관(7.7%)과 1개관(3.8%)으로 나타났다.

〈표 11〉 자료의 소유권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빈도(비중, %))

구분	전체 도서관	교육청	자치단체
개별도서관이 부산대표도서관에 자료만 이관하고 자료의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는 형태	5(19.2)	1(11.1)	4(23.5)
개별도서관이 부산대표도서관에 자료와 함께 자료의 소유권도 함께 양도하는 형태	15(57.7)	6(66.7)	9(52.9)
개별도서관이 모든 이관자료의 소유권은 갖되, 보존가치가 높은 일부 자료의 소유권만 부산대표도서관에 양도하는 형태	1(3.8)	0(0.0)	1(5.9)
개별도서관이 모든 이관자료의 소유권은 부산대표도서관에 양도하되, 보존가치가 높은 일부자료의 소유권만 갖는 형태	2(7.7)	1(11.1)	1(5.9)
개별도서관과 지역부산대표도서관이 공동으로 자료의 소유권을 갖는 형태	1(3.8)	0(0.0)	1(5.9)
무응답	2(7.7)	1(11.1)	1(5.9)
합계	26(100.0)	9(100.0)	17(100.0)

이관자료의 소유권 처리에 대한 의견을 운영주체 별로 분석해보았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단위도서관이 부산도서관에 자료와 자료의 소유권을 함께 양도하는 형태에 대해 교육청 소속 도서관 사서들의 응답률이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형태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속 도서관보다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자료이관기준

단위도서관에서 부산도서관으로 자료를 이관할 때 어떤 기준을 고려할지 사서들의 의견을 조사해보았다. 연구팀이 제시한 자료이관기준과 Ⅲ장에서 제시하는 1중 2책 원칙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시한 기준 이외 자료이관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도서관의 경우 소장자료 중 10-20년된 자료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이에 보존서고 자료 이관 시 기준은 최소 30년 이상된 자료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공동보존서고에서 자료의 소장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해야 한다. 공동보존서고는 부산지역 모든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보관하되, 복본 중 상태가 양호한 것을 보존하고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전문가들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관을 희망하는 희귀자료나 특화자료를 우선 신청 받고, 도서관별 서고 보관된 도서목록이 비슷하여 대부분 중복일 것 같은데 규모가 큰 도서관의 서고목록 중심으로 구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로 자료를 이관할 때, 단위도서관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보존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표도서관이 단위도서관으로부터 자료를 이관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는 공공도서관의 특성상 도서관 간 동종자료 즉 복본수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이다.¹⁶⁾ 이에 단위도서관이 이관희망자료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물리적 상태를 기입하고, 공동보존서고 실무팀에서 물리적 상태를 점검하여 최종 이관결정을 내리는 방법 이외 단위도서관이 자료를 분담하여 이관하는 방법을 제안한 도서관도 있다. 더불어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 중심으로 이관받아야 하며, 보존가치의 판단과정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Ⅲ.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방안

1. 공간운영방안

일반적으로 공동보존서고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은 서고공간, 업무공간, 이용공간 등으로 대별된다. 기존 연구를 분석해 보면, 서고공간은 대체로 도서서고, 비도서서고, 귀중본/희귀본서고 등의 공간으로, 업무공간¹⁷⁾은 하역데크, 자료처리실, 자료소독실(탈산/소독), 자

16) 앞서 단위도서관이 작성한 이관희망자료목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1종 3책 이상 자료가 4,108종이며 그 중 39책 복본이 있는 자료도 있었다.

17)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관의 경우 지역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와 수평비교하기 어려우나, 현재 자료보존관 2층 250평 규모에 자료보존센터 사무실, 보존복원처리실, 보존과학연구실, 매체변환실, 전자매체보존처리실, 제본실, 탈산처리실, 자료촬영실 등 총 7개의 전문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료수선(복원)실, 매체변환실, 사무실/회의실, 장비보관실 등의 공간으로, 이용공간은 자료열람실, 귀중본/희귀본열람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공간운영방안을 현재 공간규모와 공간배치계획을 감안하여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반영한 다음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부산도서관 개관준비팀은 공동보존서고 운영을 위해 서고공간 2762.73㎡의 총 8개(지하 1층 4개, 지하 2층 3개, 지상 3층 1개)와 보존업무처리를 위한 공간을 99.63㎡ 규모로 계획 중이다. 서고공간 8개는 지하층에 도서관서고 4개(1969.4㎡), 비도서관서고 2개(553.46㎡), 귀중서고 1개(99.63㎡) 등으로, 지상층에 밀집형 서고 1개(140.24㎡)를 계획하고 있으며 최대 150만책 수장가능하다. 이중 지상 3층에 계획 중인 밀집형 보존서고는 공동보존서고로 이관된 자료 중 향후 대출통계분석 등의 과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이용빈도가 빈번한 자료를 분리하여 수장할 계획이다. 보존업무처리를 위한 공간은 총 122.69㎡로 인수실, 소독실, 정리실(수선/매체변환) 등으로 계획하고 있으며¹⁸⁾, 지하층에 별도의 이용공간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부산시 교육협력담당관실 2017c).

가. 서고공간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는 단위도서관으로부터 이관된 최대 150만책을 수장하기 위해 지하 1층의 일부와 지하 2층에 수장서고를 배치하도록 한다. 지하 1층은 보존처리업무를 실시하는 공간을 제외하고 도서관서고, 비도서관서고, 귀중서고 등으로 운영하며, 지하 2층은 도서관서고와 비도서관서고 등으로 운영한다.

도서관서고는 열람용서고와 보존용서고로 나누어 이관자료 중 1책(보존용)은 보존용서고에 수장하여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보존용으로 하고, 나머지 1책(열람용) 열람용서고에 수장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가능하도록 한다. 보존서고는 단위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자료를 장기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짐과 동시에 이용자의 대출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도 가진다. 이에 1종 2책을 이관받아 1책은 보존용으로 별도 관리하고 1부는 대출과 열람 서비스에 활용하는 방법을 적용하도록 한다.¹⁹⁾

이관희망자료목록 분석결과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이 이관하고자 하는 자료의 대부분은 단행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본신문/잡지, 카세트테이프(CT), 비디오테이프(VT) 등 비도서자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해당자료의 수장공간이 필요하다.

18) 이하 인수실은 '자료처리실', 소독실은 '자료소독실', 자료정리실(수선/매체변환)은 '자료수선/매체변환실'로 표기한다.

19)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경우 제1보존서고에는 관외 대출이 가능한 자료, 동종의 자료가 1책 더 있을 경우 물리적 상태가 양호한 책을 제2보존서고에 보존하여 관외대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초기에는 책수 상관없이 모두 이관받았으나, 현재는 관리 상의 문제 등의 이유로 1종 2책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비도서자료 중 칼라 필름과 사진은 일반 비도서자료와 달리 냉동상태로 보관해야 등 보존환경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나,²⁰⁾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보존서고에는 해당자료가 수장되어 있지 않으며 이관희망자료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본잡지/신문은 도서자료와 보존환경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서가 형태 등이 다르므로 별도로 보존하는 것이 좋으며, 카세트테이프(CT), 비디오테이프(VT) 등의 자료는 지류와는 상이한 보존환경에서 보존해야 하므로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현재 2개 구역으로 계획 중인 비도서서고1에 카세트테이프(CT)와 비디오테이프(VT) 등의 자료를 수장하고, 비도서서고2에 제본잡지/신문 등을 수장하도록 한다. 향후 CD/DVD 등의 자료가 공동보존서고로 이관될 경우 비도서서고1에 카세트테이프(CT), 비디오테이프(VT) 등과 함께 수장하고, 낱장자료, 지도, 포스터, 미제본신문 등의 자료가 이관될 경우 비도서서고2에 신문이나 잡지 등과 함께 수장하도록 한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비도서자료는 디지털파일로 변환하여 DVD로 제작하고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디지털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매체변환과 디지털아카이빙에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는 원본 자료 보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단위도서관이 수장하고 있는 귀중본/희귀본은 많지 않고 소장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귀중본서고가 지급하지는 않지만 향후 대표도서관 차원에서 귀중본/희귀본, 지역 내 유일자료, 지역연구에 필요한 부산학자료 등 단위도서관 차원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자료를 수집, 보존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해당자료만 별도로 수장가능한 공간 확보는 필요하다.²¹⁾ 특히 향후 부산도서관이 수집계획하고 있는 부산학자료의 경우 그 특성상 소급수집을 통한 구간자료와 비매자료가 일정 부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자료는 귀중본서고를 이용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나. 업무공간

자료보존처리를 위한 공간은 자료처리실, 자료소독실, 자료수선/매체변환실 등으로 계획한다.

자료처리실은 인수공간, 정리공간, 장비공간, 자료포장공간, 반납처리공간 등으로 구획한다. 인수공간은 단위도서관에서 이관된 자료를 인수하여 자료의 물리적인 상태를 검수하는 공간으로 1차 오염의 원인이 되는 먼지제거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산지역 단위도서관 보존서고의 보존환경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20) 캐나다 개티노 보존센터의 경우, 칼라필름과 사진을 보관하는 서고의 온도는 $-18\pm 2^{\circ}\text{C}$, 습도는 $30\pm 5\%$ 로 유지하고, 반출이 필요할 경우 온도가 다른 적응실 2개를 거쳐 반출하여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고 있는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21)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경우 귀중본서고에 60-70년대 잡지와 경기도 유일본을 별도 수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자료의 장기보존을 위해 오동나무 서가를 구비하고 있다.

공간에서 별도의 관리없이 수장되어 있던 자료를 이관받아 서고로 입고하는 과정에서 흡진 작업은 필수적이다. 자료정리공간은 인수된 자료에 대해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보존용 서가와 열람용서가 등 입고될 서고위치를 결정한 다음 단위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MARC 데이터 수정 등 목록업무를 실시하는 공간이며, 장비공간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라벨링 작업 등 서가배치를 위한 준비작업을 실시하는 공간이다. 이외 대출을 위해 단위도서관으로 이송되는 대출자료 포장공간과 단위도서관으로부터 반납된 자료의 물리적인 상태 등을 확인하여 서고로 이동하기 위한 반납처리공간 등으로 구획할 수 있다. 보존서고로 이관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처리절차를 고려하여 이상의 공간을 순차적으로 구획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만, 계획된 공간의 규모를 감안하여 자료처리실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를 해당 공간에서 모두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인수, 상태검수, 분류, 목록, 장비업무 등은 해당공간에서 실시하고 대출을 위한 자료 포장과 반납처리 등 업무의 일부는 지상층 업무공간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²²⁾

자료소독실은 탈산처리공간과 소독공간으로 구획할 수 있다. 탈산은 종이자료의 산성화 및 변색 등 화학적인 훼손을 예방하는 업무이고, 소독은 곰팡이나 세균 등 각종 유해미생물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로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 하지만 공간 내 구분을 통해 함께 활용할 수도 있다.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산시립시민도서관이 수장 중인 신문과 판보 등 일부자료는 이미 열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에 탈산처리시설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시설이 구비된다면 열화가 진행된 자료를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여 탈산처리를 실시하고, 이외 자료에 대해서는 산성화 측정 후 해당자료를 대상으로 탈산처리업무를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자료소독의 경우, 서고 선반과 서고공간 전체에 대한 소독, 개별 자료에 대한 소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된다. 서고 내 상시소독시스템을 통한 일상적인 소독처리는 필수적이지만, 수장 자료 중 유해미생물이 번식한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소독장비를 구비하는 것이 좋다. 다만, 대상자료의 수량 정도를 감안하여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실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도 있다.²³⁾

자료수선/매체변환실은 수선공간과 매체변환공간으로 구획한다. 수선공간은 이관된 자료 중 훼손된 자료를 대상으로 찢어진 페이지 접합, 책등 수선, 재제본 등의 작업 등 수선작업을 실시하는 공간이다. 그 외 귀중서/희귀서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복원업무는 자체적으로

22)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경우 업무공간은 준비실, 소독실, 인쇄제본실 등 3개 공간으로 구획하였다. 준비실은 자료의 인수와 배가위치 결정, 이관자료에 대한 분류, 목록(데이터 반입), 장비 등의 업무를 실시하기로 계획되었으나, 현재 인수와 배가위치 결정 이외 모든 업무는 지상층 업무공간에서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담당사서에 의하면 이러한 작업방식은 다소 비효율적이므로 보존서고자료의 정리업무는 보존서고 인근 업무공간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23)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경우 서고 공간 전체에 대해서는 2~3년 주기로 외부전문업체에 소독처리를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소독은 상시소독시스템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실시하는 것보다 외부 전문업체를 통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으므로 해당공간 마련은 향후 필요할 경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매체변환은 이관된 자료 중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나 내용 소실이 우려되는 자료 등을 중심으로 원본자료의 훼손을 예방하고 대체이용자료를 확보하여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가 실시되는 공간이다. 최근에는 주로 디지털화를 통한 매체변환(DVD 제작)이 주를 이루므로 디지털화 작업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 특히, 부산학 아카이브의 메카로서 자료수집과 디지털 아카이빙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서, 사진, 그림, 브로슈어, 팜플렛 등의 종이자료 뿐 아니라 기존 도서관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실물자료, 구술자료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수집하여 디지털화작업을 실시해야 하므로 해당 공간의 구비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용공간

보존서고 자료는 보존서고와 인접한 곳에 별도의 열람공간을 마련하여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지하층 공간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상층 열람공간을 공동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2. 자료이관방안

가. 자료이관주기와 소유권처리

단위도서관에서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로 자료를 이관하는 주기는 연 1회, 도서관 내 업무처리과정을 고려하여 연초나 연말 중 장서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 직후가 좋을 것이다. 이와 함께 자료이관과정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소유권 처리방안이다. 단위 도서관에서는 장서수에 예민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해온 귀중본이나 희귀본은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하기보다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보존할 계획이라는 단위도서관의 의지와 달리 공동보존서고가 지역의 귀중본이나 희귀본을 보존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료의 소유권 문제는 좀더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조사대상 도서관의 절반가량(15개관(57.7%))이 자료와 함께 소유권도 공동보존서고로 이전하는 형태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형태에 의사표명을 한 경우도 5개관(19.2%)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자료의 소유권 문제는 차후 부산도서관과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으로 보인다. 국내의 경우 공동보존서고의 운영이 지역대표도서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외 공동보존서고 사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해외의 경우 자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과 소유권 이전 없이 자료만 위탁 보관하는 방식이 혼재 중이라는 점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공동보존서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자료관리과정의 효율성 제고에 적합하다

는 측면에서 소유권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귀중본이나 희귀본 등 특수한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소유권 유지나 소유권 공동소유 등의 별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자료이관절차와 기준

일반적으로 공동보존서고로 자료를 이관하는 방식은 단위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선정하여 이관하도록 하는 경우와 공동보존서고에서 이관대상자료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에 적합한 자료만 이관하도록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노지현, 조용완, 이제환 2013). 이번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사서들의 의견 역시 이와 같이 나뉘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자료의 이관절차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로 자료를 이관하고자 하는 도서관은 이관희망자료목록을 작성하고, 공동보존서고 운영팀은 이관희망자료목록을 바탕으로 자료의 복본현황과 물리적 상태 등 평가한다. 물리적 상태는 1차적으로 이관기준에 제시된 3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필요할 경우 실물자료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단위도서관의 이관희망자료목록 작성과정에서 공동보존서고 수장여부를 확인하여 동종자료가 2책 수장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수장자료와 물리적 상태를 비교하여 상태가 좋을 경우에만 이관한다. 즉, 기수장자료에 비해 물리적 상태가 양호한 동종 자료는 서고로 이관하고 다른 책은 폐기한다.
- 한편, 단위도서관마다 특정 주제분야를 지정하여, 각 도서관은 해당 주제 분야 자료만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분담이관방식은 이관되는 자료의 중복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며 이관되는 자료의 복본이 과다할 경우 적용할 수 있다.²⁴⁾
- 이관자료는 자료 1종당 최소 2책(점)을 원칙으로 하며, 물리적 상태가 좋은 책은 보존용 서고로 나머지 책은 열람용서고에 비치한다. 다만, 부산지역 내 도서관이 한군데도 소장하지 않은 자료 등 지역 내 유일본이나 ‘R’에 해당하는 자료는 수량에 상관없이 모두 이관받도록 한다. 귀중본/희귀본으로 분류되는 ‘R’자료에 대한 판단은 필요할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도록 한다. ‘U’에 해당하는 자료는 전문적인 복원 혹은 매체변형을 통하여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자료만 포함한다. 복원이나 매체변환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단위도서관이 1차적으로 실시하고, 최종 판단은 공동보존서고 실무팀이 실시한다. 다만, 이관희망자료목록에 복본이 있을 경우, 공동보존서고 실무팀에서 1책만 선정하여 복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M, S, T, D, E’에 해당하는 자료는 물리적

24) 이 방식은 현재 대구시립중앙도서관이 지역 내 교육청 소속 9개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자료를 이관받는 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문학분야자료가 많기 때문에, 각 도서관에 문학 제외 분야를 1개씩 배정하고, 문학분야는 9개로 세분하여 배정하고 있다.

상태가 양호한 1책만 보존하고 나머지 복본은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관 당시 수장공간의 상황에 따라 2책을 보존하여 이용에 대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p>〈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자료이관기준〉²⁵⁾</p> <p>20- years since publication date(발행일(년) 이후 20년 경과한 자료) 10- years since publication date(발행일(년) 이후 10년 경과한 자료) 5- years since last circulation date(최종 대출이후 5년 경과한 자료) M- Misleading or factually inaccurate(부정확한 내용을 수록한 자료) U- Ugly and worn beyond mending or rebinding(수선이나 재제본이 어려울 정도로 파손되거나 훼손된 자료) S- Superseded by a new edition or better title(개정판이나 최신판으로 대체된 자료) T- Trivial and of no permanent merit(장기적으로 소장할 가치가 없는 자료) D- Duplicated(복본이 불필요하게 많은 자료) R- Rare/precious book(원형보존이 요구되는 희귀서/귀중서) E- Elsewhere(웹 등 다른 정보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 A- Additional respect(기타 기준; 이상에서 제시된 기준 이외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을 경우 개별 도서관에서 추가하거나 기타사항으로 포함하여 사유 기재)²⁶⁾ * - 지역대표도서관에서 이관을 요청한 자료</p> <hr/> <p>*** 물리적인 상태는 다음 항목 별로 1(양호), 2(보통), 3(불량)으로 표시²⁷⁾ S(support) : 청결, 습기, 곰팡이, 해충, 열화 등 보존상태 B(binding) : 제본상태 C(completeness) : 낙장이나 결호 없이 내용면에서 완전한 상태</p>

이상에서 논의된 자료이관절차와 이관자료의 소유권 등의 문제가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처리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나 규정 등 자치 규범의 형태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⁸⁾

IV. 결론

그간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동보존서고 운영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그 필요성에 대해 더 이상 논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만큼 도서관

- 25) Westchester Public Library의 Weeding Criteria(10/5MUSTY)와 노지현, 조용완, 이제환(2013)이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 26) A에 분류되는 자료 중 동일한 내용이 반복될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여 자료이관기준에 대한 개정을 실시한다.
- 27) 물리적 상태를 별도로 표시할 경우, 복수의 도서관에서 이관되는 중복자료 중 최종 이관대상자료를 선별하는 작업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 PASCAL의 경우, 최상 상태에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수장하기 위하여 이관도서관이 이관하는 자료의 손상 정도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 28) 부산시는 부산도서관 개관을 위한 기본절차인 운영조례를 2017년 하반기에 제정하고, 2018년 상반기 중 교육청 및 구군과의 협의를 거쳐 공동보존서고 이관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부산시 교육협력담당관실 2017a)

계에서 ‘자료의 공동보존’은 절실했던 과제이며, 우리는 이제 지역대표도서관을 통한 공동보존서고 운영이라는 출발선에서 첫걸음을 막 떼기 시작했다. 현재 국내에서 기존 도서관을 지정한 사례를 제외하고 지역대표도서관 건립이 확정되어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총5개 지역이며, 이중 부산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건립을 위한 논의와 계획수립이 상대적으로 초기에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공동보존서고를 운영 중인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하여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자료이관방안과 공간운영방안 2개의 축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조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미 절반 이상의 공공도서관이 서고 포화상태에 직면해 있었고 보존환경 역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은 공공도서관이 오랫동안 공통적으로 겪고 있던 공간부족문제를 해결하여 공간의 쾌적함을 유지할 뿐 아니라, 자칫 손실될 수도 있는 지역 내 귀중자료를 발굴하여 보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부산도서관 건립이 확정된 시점에서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자료보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동보존서고 운영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공동보존서고 운영방안을 공간운영방안과 자료이관방안 2개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용자서비스부분과 자료정리부분은 제외하였다. 이에 이 연구가 지역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과 관련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현민. 2006. 공공도서관 협력망을 이용한 공동보존도서관 및 국가보존도서관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1): 29-53.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libsta.go.kr/>> [인용 2017. 8. 5].
- 노지현, 조용완, 이제환. 2013. 지역 거점형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영 방안: 부산시를 사례로 하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2): 167-195.
- 부산시 교육협력담당관실. 2017a. 부산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 『부산시 보도자료』. 2017. 8. 2.
- 부산시 교육협력담당관실. 2017b. 부산도서관 이관예정도서 임시보관 처리 결과 보고(2017.4.10.) 『부산시 교육협력담당관 업무보고』. 2017. 4. 10.
- 부산시 교육협력담당관실. 2017c. 부산대표도서관 평면도. 『부산시 교육협력담당관 내부자료』.

2017. 8. 16.
- 서혜란, 김선애, 강은영. 2015. 공공도서관 자료보존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2): 111-133
- 신지연, 김유승. 2011.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3): 129-150.
- 윤희윤. 2013a. 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모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51-74.
- 윤희윤. 2013b. 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타당성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2): 5-26.
- 조용완, 노지현. 2013. 공동보존서고의 보존환경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367-397.
- Westchester Public Library. 2012. *Westchester Public Library Weeding Criteria*. <<https://www.wpl.lib.in.us/policies/collection%20weeding%20manual.pdf>> [cited 2017. 7. 5].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u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Cooperation. 2017a. “Busan Metropolitan Library Planning Program.” *Busan Metropolitan City Press Releases*. 8.2.
- Bu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Cooperation. 2017b. “Temporary Deposit of Materials Will Be Transferred to the Busan Metropolitan Library(Work Report).” *Busan Metropolitan Office of Director for Education Cooperation's Job Report*. 4.10.
- Bu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Cooperation. 2017c. “Busan Metropolitan Library Floor Plan.” *Internal Data(Bu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Cooperation)*. 8.16.
- Cho Yong-Hyun, Rho Jee-Hyun. 2013. “Preservation Environments of Cooperative Library Storage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4): 51-74.
- Kang Hyen-Min. 2006.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Repository Library and Repository Library by Using of Public Library Cooperative Network.”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1): 29-53.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https://www.libsta.go.kr/>> [cited 2017. 8. 5].

Rho Jee-Hyun, Cho Yong-Hyun, Lee Jae-Whoan. 2013. "Developing Strategies for a Cooperative Repository Library at a Regional Level – the Case of Busan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2): 167-195.

Shin Ji-Yeon, Kim You-Seung. 2011.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Plan for the Cooperative Repository Libraries Based on Regional Centra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3): 129-150.

Suh Hye-Ran, Kim Sun-Ae, Kang Eun-Yeong. 2015. "The Status Quo and Tasks of the Collection Preservation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2): 111-133.

Yoon Hee-Yoon. 2013. "A Model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for Publ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3), 51-74.

Yoon Hee-Yoon. 2013. "Feasibility Analysis of Establishment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for Publ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3): 51-74.